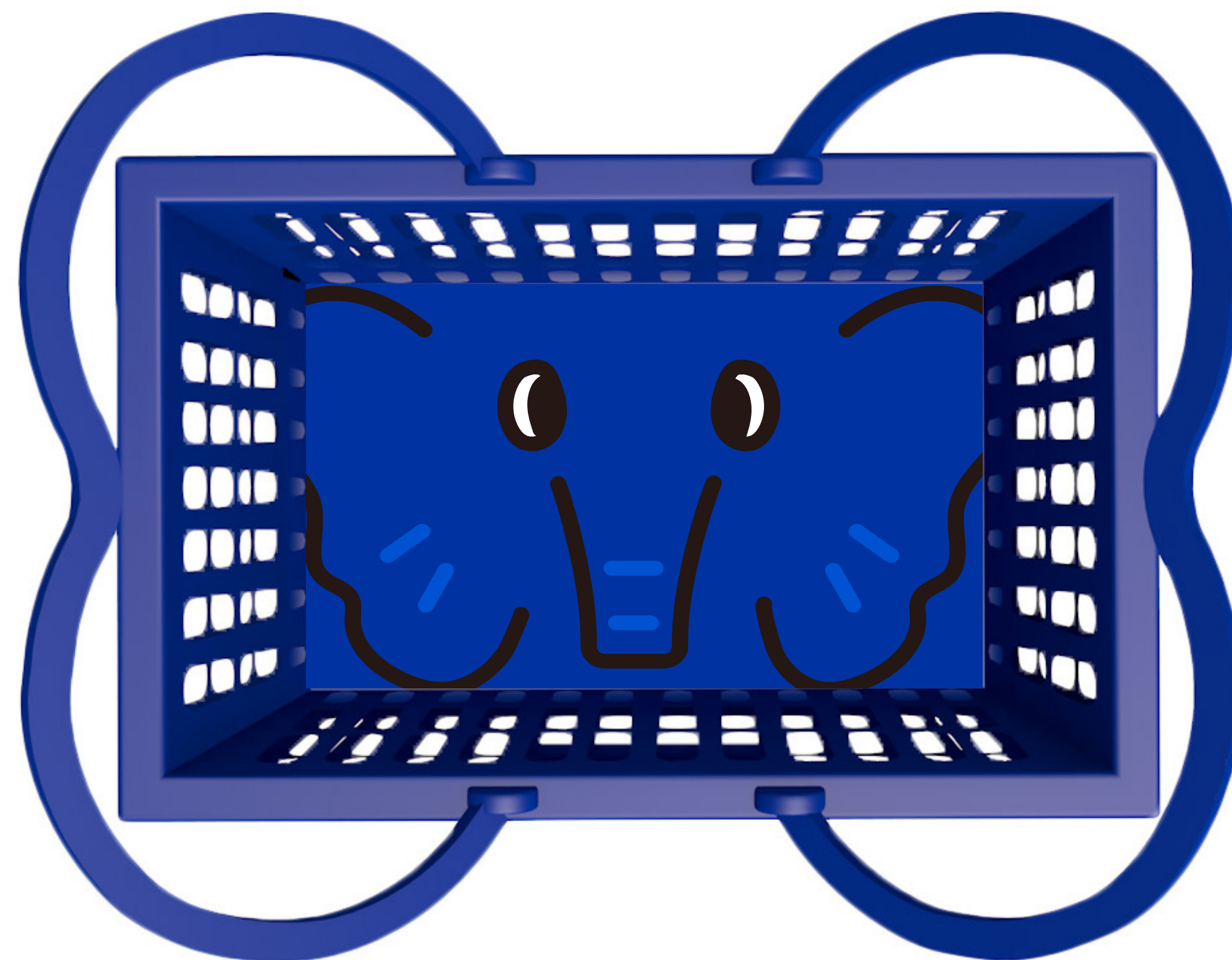




| 편의점 및 마트에 진열될때



| 45도 각도에서 볼때



| 탑뷰에서 볼때

Background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사람들은 때때로 가면을 쓴 채 살아간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혼술 문화’가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혼자 술을 마시는 시간을 통해 지친 내면을 돌보고 솔직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혼술은 단순히 혼자 술을 마시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사회인들이 속에 담아 두었던 화를 해소하며 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한 자가 치유의 한 과정이 되었다.

Idea

‘들어줄게, 담아봐!/담아 놓지 말고’라는 슬로건은 다음과 같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들어줄게, 담아봐!’는 물건을 들어주겠다는 장바구니로서의 기능을 뜻하며 ‘들어줄게, 담아 놓지 말고.’는 속에 담아 둔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겠다는 리스너로서의 태도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이용하며 여러 주류를 담기 위해 편의점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장바구니의 디자인을 재구성했다. 장바구니를 필라이트의 마스코트인 필리로 캐릭터화 해 바닥엔 필리의 얼굴을, 손잡이는 필리의 귀를 형상화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들면 접혀있던 코끼리의 귀(손잡이)가 퍼지면서 어떤 이야기에든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리스너의 자세를 보여주게 된다.

Effect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 이야기를 들어 주는] 필라이트는 때때로 벅찼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혼술족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